

2020년 7월 2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다우지수 보다 나스닥의 상승폭이 큰 하루 대형 기술주, 반도체 상승 Vs. 금융업종, 산업재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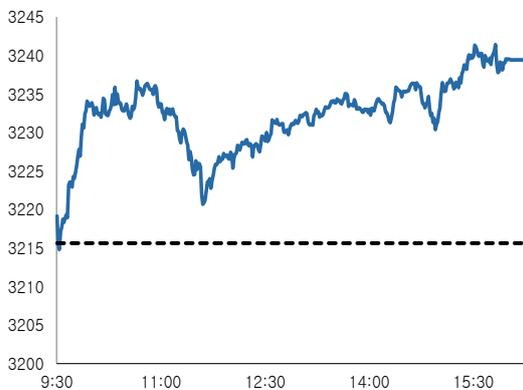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업종 차별화

미 증시는 버블 논란이 일던 대형 기술주가 지난 금요일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오늘도 목표주가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의 상승폭이 확대. 더불어 공화당의 추가 부양책 발표도 투자심리 개선 효과에 도움. 다만, 5일 연속 사망자가 1,000명 이상 기록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중국과의 마찰이 이어지자 다우의 상승은 제한(다우 +0.43%, 나스닥 +1.67%, S&P500 +0.74%, 러셀 2000 +1.16%)

미 증시는 업종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을 보임. 전반적으로는 공화당의 부양책 발표 특히 요건에 해당되는 성인에 1,200 달러 지급 발표는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 물론 추가 실업 급여를 주당 600 달러에서 200 달러로 삭감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민주당과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감안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아 큰 폭의 상승은 제한. 이런 가운데 이번주 실적 발표하는 애플(+2.37%)과 아마존(+1.54%), 알파벳(+1.41%)이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금요일 낙폭 축소에 이어 오늘은 강세를 보이자 나스닥의 상승폭이 컸음. 더 나아가 달러 인덱스가 2년내 최저치를 기록하자 올해 3천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긍정적. 특히 골드만은 미국보다 세계 여타 국가들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며 약달러 기조의 지속을 전망.

그렇지만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5일 연속 1천명을 넘어서고 일부 주 정부는 이 여파로 경제 재개를 축소해 하반기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은 부담. 더불어 중국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양국간 갈등 심화가 높아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지속되자 금융주, 산업재가 부진하며 다우지수의 상승폭은 제한, 결국 미 증시는 코로나, 미-중 마찰, 공화당 추가 부양책 발표, 대형 기술주 실적 기대 등으로 업종 차별화가 극심한 모습.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0.79	2,217.86	홍콩항셱	-0.41	24,603.26	-0.41
KOSDAQ	+0.81	801.23	영국	-0.31	6,104.88	-0.31
DOW	+0.43	26,584.77	독일	+0.00	12,838.66	+0.00
NASDAQ	+1.67	10,536.27	프랑스	-0.34	4,939.62	-0.34
S&P 500	+0.74	3,239.41	스페인	-1.70	7,170.60	-1.70
상하이종합	+0.26	3,205.23	그리스	-1.30	626.08	-1.30
일본	-0.16	22,715.85	이탈리아	-0.28	20,019.96	-0.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23%

지난 금요일 낙폭을 축소했던 대형 기술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를 보였다. 애플(+2.37%)은 JP모건이 강한 실적 발표가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 하자 강세를 보였다. 다만, 실적 발표 후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은 약화 되었다고 주장하며 투자의견은 유지했다. 아마존(+1.54%)도 온라인 판매 기대 속 일부 투자회사들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MS(+1.27%), 알파벳(+1.41%)도 강세를 보였다. 모더나(+9.15%)는 3차 임상 시작과 더불어 미국 정부로부터 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소식으로 급등 했다. 바이오젠(+5.09%)은 모겐스탠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성공 확률이 높다며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퀄컴(+4.29%), 마이크론(+3.14%), 램리서치(+3.58%) 등 반도체 업종은 TSMC(+12.65%)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23%). 은 ETF(SLV: +7.64%)와 금 ETF(GDX: +4.81%)도 급등했다. 반면, 약국 체인업체인 월 그린부츠(-1.65%)는 CEO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장난감 제조업체인 하스브로(-7.41%)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 여파로 급락했다. MLB 선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일부 게임이 중단되자 온라인 도박 회사인 드레프트킹스(-6.48%)는 급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84%	대형 가치주 ETF(IVE)	+0.04%
에너지섹터 ETF(OIH)	+0.83%	중형 가치주 ETF(IWS)	+0.40%
소매업체 ETF(XRT)	+1.10%	소형 가치주 ETF(IWN)	+0.39%
금융섹터 ETF(XLF)	-0.82%	대형 성장주 ETF(VUG)	+1.39%
기술섹터 ETF(XLK)	+1.58%	중형 성장주 ETF(IWP)	+1.6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98%	소형 성장주 ETF(IWO)	+1.84%
인터넷업체 ETF(FDN)	+1.53%	배당주 ETF(DVY)	-0.56%
리츠업체 ETF(XLRE)	+1.18%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8%
주택건설업체 ETF(XHB)	+2.9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90%
바이오섹터 ETF(IBB)	+2.67%	미국 국채 ETF(IEF)	-0.16%
헬스케어 ETF(XLV)	+0.75%	하이일드 ETF(JNK)	+0.26%
곡물 ETF(DBA)	+0.87%	물가연동채 ETF(TIP)	0.00%
반도체 ETF(SMH)	+4.03%	Long/short ETF(BTAL)	+0.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4.71	+0.21%	+4.11%	+2.67%
소재	392.23	+1.41%	+2.82%	+14.26%
산업재	609.26	+0.39%	+1.37%	+8.91%
경기소비재	1,132.31	+0.87%	-0.89%	+11.01%
필수소비재	639.98	+0.54%	+2.35%	+9.27%
헬스케어	1,233.39	+0.72%	-0.01%	+8.44%
금융	399.58	-0.81%	+0.80%	+6.32%
IT	1,880.04	+1.61%	-2.47%	+5.28%
커뮤니케이션	189.90	+0.78%	-1.60%	+9.16%
유틸리티	302.51	-1.26%	+0.20%	+7.82%
부동산	218.37	+1.12%	+1.48%	+4.2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성장주의 상대적 우위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9%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55%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5.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 상향 조정된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며 강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지속 등으로 산업재 및 은행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특징이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업종별 차별화를 예상케 하는 요인이다. 한편, 달러화가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이며 원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은 지수 상승 요인이다.

그렇지만 미 증시 상승 요인 중 하나인 공화당의 부양책은 전일 한국 증시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으나, 그동안 상승에 따른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이번 주 실적 발표 후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은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달러화 약세가 미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 지연, 미-중 마찰에 따른 결과라는 점은 달러 약세로 인한 한국 증시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 후 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 속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 증시의 특징처럼 가치주 보다 성장주의 상대적 우위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경기 회복 기대 확산

6 월 미국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7.3%로 전월(+15.1) 보다 부진했으나 예상(6.5%)에는 상회했다. 운송을 제외한 수치는 전월 대비 3.3% 상승해 전월(+3.6%)이나 예상(3.5%)에는 하회했다.

7 월 달라스 연은의 기업 활동지수는 전월(-6.1) 보다 개선된 -3.0 으로 발표되었으며, 세부 항목을 보면 생산지수(13.6→16.1), 신규수주(2.9→6.9), 고용지수(-1.5→3.1) 등 대부분이 개선 되었다.

7 월 독일 ifo 기업활동지수는 전월(86.3)이나 예상(89.2) 보다 개선된 90.5 로 3 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독일 경제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이는 유로화의 강세 요인 이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장중 상승 전환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공화당의 추가 부양정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다만,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코로나 사망자수가 5 일 연속 1 천명 이상 기록하는 등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폭은 제한 되었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달러 약세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이 상승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유로화가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자 달러화는 약세폭을 확대했다. 더불어 코로나 피해 회복 속도가 유럽과 이머징 국가들이 미국보다 더 빠르다는 점도 달러 약세 요인이었다. 엔화의 경우는 미-중 마찰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폭이 확대되었다. 역외 위안화를 비롯해 신흥국 환율은 달러화 약세로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중 마찰 확대 등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오후들어 주식시장의 강세폭 확대,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수요 부진이 부각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5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5 배)을 하회한 2.32 배를 기록했고, 간접 입찰 또한 12 개월 평균(59.9%)을 하회한 58.1%를 기록했다.

금은 달러 약세 및 미-중 마찰 확대, 코로나 지속 등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은도 7% 내외의 급등을 이어갔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은 급등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5%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1.60	+0.75	+1.66	Dollar Index	93.678	-0.80	-2.25
브렌트유	43.41	+0.16	+0.30	EUR/USD	1.1746	+0.77	+2.60
금	1,955.40	+1.57	+6.27	USD/JPY	105.4	-0.70	-1.74
은	24.501	+7.23	+21.34	GBP/USD	1.2875	+0.63	+1.69
알루미늄	1,708.00	+0.47	+2.61	USD/CHF	0.9204	-0.02	-1.97
전기동	6,420.50	+0.09	-1.03	AUD/USD	0.7144	+0.55	+1.82
아연	2,237.00	+0.86	+1.66	USD/CAD	1.3360	-0.41	-1.29
옥수수	334.50	-0.15	-0.37	USD/BRL	5.1447	-1.68	-3.54
밀	527.75	-2.18	+1.10	USD/CNH	6.9991	-0.26	+0.17
대두	899.75	+0.06	-0.03	USD/KRW	1196.10	-0.45	-0.59
커피	110.40	+1.85	+10.68	USD/KRW NDF 1M	1195.85	-0.42	-0.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614	+2.47	+0.33	스페인	0.337	-1.10	-1.60
한국	1.292	-1.00	-4.00	포르투갈	0.344	-0.80	-1.80
일본	0.022	+0.30	-0.90	그리스	1.071	+1.10	-5.40
독일	-0.491	-4.30	-3.10	이탈리아	0.986	-1.00	-11.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